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2013년 1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결핵예방 및 관리」에 대한 초청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본 협회에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진행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원조사업인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총 12명의 에티오피아 보건관련 공무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아디스아바바 결핵현황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 및 한국의 선진 결핵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 저개발국 결핵관리 인프라 형성 및 결핵퇴치사업 지원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결핵예방 및 관리 국내 초청 연수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2013년 1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결핵예방 및 관리」에 대한 초청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본 협회에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진행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원조사업인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총 12명의 에티오피아 보건관련 공무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아디스아바바 결핵현황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 및 한국의 선진 결핵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강의는 결핵의 영상의학적 진단(삼성서울병원 이경수), 내성결핵관리(보라매병원 허은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영애), 결핵역학(결핵연구원 김희진), TB/HIV(서울대병원 오명돈), 국가결핵관리체계(질병관리본부, 정종라), 결핵의 세균학적·분자생물학적 진단(결핵연구원, 김창기), 한국의 일차보건의료와 인력양성(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김진학) 등으로 구성·진행되었다. 특히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시 지역검사실 실장에게는 일대일 검사실 실습 교육을 진행하여, 자국의 검사실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연수 과정에 지역보건소(부여군 보건소) 방문 및 서울삼성병원 견학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수과정 중 습득된 지식 및 기술은 자국에서 현지의 결핵관리 체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디스 아바바 시 관계자들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국제항결핵 심포지엄에서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시 보건국 질병예방 관리과장(Ms. HANNA KUMSSA DIBABA)이 에티오피아 결핵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 발표를 해, 질의를 주고받는 등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상. 11월 6일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에티오피아 결핵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아디스 아바바 시 보건국 질병예방관리과. (Ms. HANNA KUMSSA DIBABA)

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초청 연수과정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김희진 결핵연구원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STOP-TB운동본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의 협조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전 세계적인 결핵의 유행과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

## STOP-TB운동본부, 이주민들을 위한 결핵예방교육 실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현재 150만 명을 상회하여 전체 인구의 3%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해 신고된 외국인 결핵 환자는 1,510명으로 2001년에 비해 열 배 가량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외국인 체류자 수의 변화와 비교하여 훨씬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한 결핵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월 11일과 14일, 18일 총 3일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산교육장에서 중국동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결핵예방교육은 전 세계적인 결핵의 유행과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결핵의 심각성과 퇴치의 중요성, 결핵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이들 공동체 내에서의 결핵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밖에도 지난 11월부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대상 700여 명이 속한 외국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 결핵예방교육은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고위험군 대상 결핵예방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STOP-TB파트너십 코리아 협력파트너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다. STOP-TB파트너십 코리아는 WHO Stop TB Partnership이 주도하고 각 국의 여러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세계결핵퇴치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기관/단체, 기업 등의 파트너들로 구성된 결핵퇴치 협력 네트워크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가별 공동체 내에서 결핵예방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결핵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유도하는 역할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국적자 8명을 외국인 결핵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외국인 결핵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